

					번호: PO-EP-064
제 목	법정전염병 발생의 장기추세와 기술역학적 분석에 따른 우리나라 전염병 발생양상의 특성-2004년을 중심으로 Recent Korean Communicable disease incidence by analyzing Long term trend and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focused on 2004.				
저 자 및 소 속	박만석, 박기호, 김미영, 김선미, 유효순, 박재경, 고정애, 이현주, 이덕형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시과 Mansuk Park, Keeho Park, Meeyoung Kim, Sunmee Kim, Hyosoon Yoo, Jaekyung Park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KCDC				
분 야	역학 [전염병 역학]	발 표 자		발 표 형식	포스터
<p>목적: 전염병 발생양상은 시대에 따라 매우 다르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과 한 때 사라져갔던 전염병의 재 만연으로 전염병은 각국에서 다시 중요한 보건문제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염병 발생양상과 특성도 과거와 많이 다르나, 최근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문헌은 거의 없다. 법정전염병을 포함한 전염병 감시체계는 국가에서 중요시 하는 전염병들이 모두 포함되며, 유일하게 전국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염병 감시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질병의 장기추세 분석과 함께 2004년 발생의 역학적 분석을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전염병 발생양상의 특성과 향후 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방법: 과거부터 법정전염병 감시체계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2004년 법정전염병 및 해외유입전염병, 표본감시전염병 등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질병별 발생수와 연 발생률((대상질병환자수/연인구수)*100000)을 주요 지표로 삼았으며, 질병별 장기추세의 변화와 2004년 수집 자료에 대해서는 환자의 연령별, 성별, 직업별(말라리아, 브루셀라증) 분석과 지역별, 시간적 특성별(월별 혹은 주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분포는 지도를 이용한 매핑과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였다.</p> <p>결과: 2004년 법정전염병 중 결핵, 에이즈, 한센병과 표본감시전염병을 제외한 급성전염병(이하 급성전염병)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8.4로 1960년대의 100명 이상이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었으나, 1980년대의 발생률 10여명 보다는 높다. 이는 2001년, 2003년에 비해서도 증가한 것이다. 1970년 이전에는 장티푸스,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말라리아가 높은 발생을 보이는 주요 급성전염병이었으나 1980년 이후 백신도입 및 위생상태의 개선 등으로 발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의 주기적인 유행, 말라리아의 재출현과 각종 수인성 전염병의 유행으로 199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1년부터 전체적인 발생은 감소추세에 있다. 질병별 기술역학적 특성과 종합적 분석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발생 특징을 보면 1) 브루셀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의 인수공통전염병의 급속한 증가 2) 콤비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의 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3) 뎅기열, 콜레라 등의 해외유입전염병의 증가 4) 수인성 전염병의 집단화 및 비정형화 5) 브루셀라증, 보툴리눔독소증 등의 신종전염병의 발생확인 6) 말라리아, 홍역 등 퇴치사업 대상 전염병의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p> <p>결론: 최근 우리나라는 새로운 인수공통전염병의 급속한 증가와 해외유입전염병의 증가 등 신종전염병의 위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수인성 전염병 등은 계절과 관계없이 비정형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일부 질환에서는 지역별 발생차가 뚜렷해지는 등 지역적 분석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가 전염병 감시체계의 강화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협조 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p>					